



운송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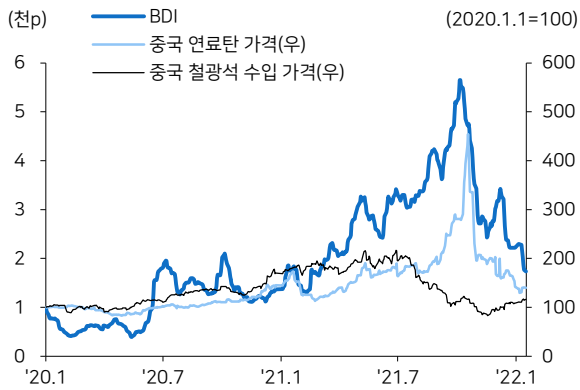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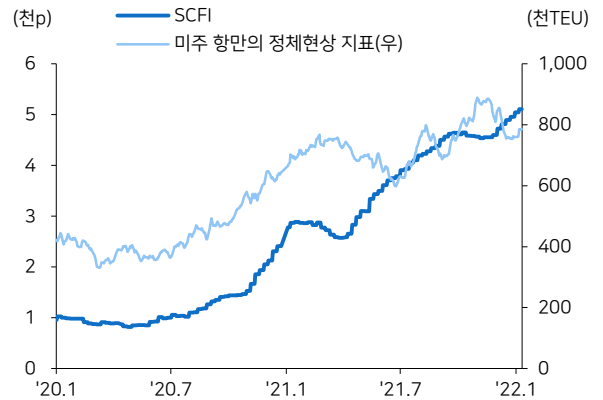
2022. 1. 18 (화)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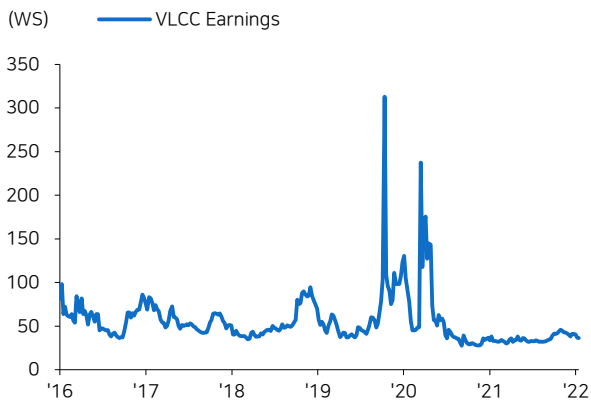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31.0p(-3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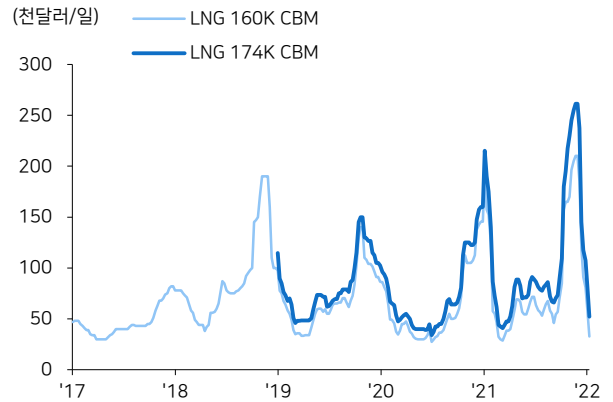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5,094.4(-15.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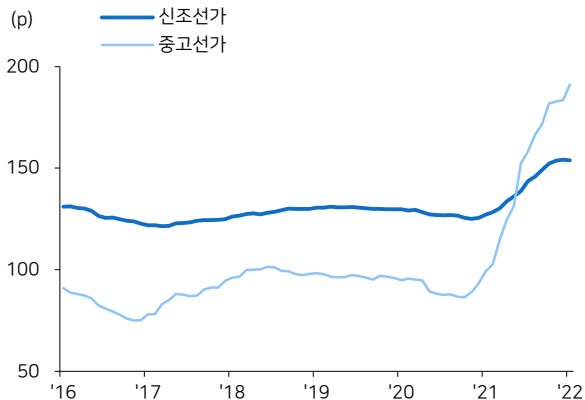
VLCC Spot Rate 36.4p(-0.3p WoW)



LNG Spot 운임 32.8p(-25.0p WoW) 52.3p(-28.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3.9p(+0.8p WoW) 191.0p(+5.0p WoW)



항공화물 처리량 328.2p(+2.5p DoD) 101.7p(-0.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LA/LB put container dwell fee on hold until 29 April

LA항만위원회는 컨테이너 적체료 부과 조치를 4월 29일 시행으로 연기함. 또, 기존 6일이었던 트럭/철도 수송 컨테이너 적체기간을 9일 적체시 벌금부과로 변경함. 10월 조치 발표시점부터 현재까지 9일이상 적체 컨테이너는 -60% 감소하였다고 보도됨. (container-news)

한국조선해양, 5,110억원규모 선박 5척 계약

한국조선해양이 LNG추진 컨테이너선 3척, PC선 2+2척 계약을 공시함. 컨테이너선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상반기 인도될 예정임. PC선은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돼 2023년 하반기 인도될 예정임. (선박뉴스)

MOL named as owner behind LNG carrier newbuilding at DSME

대우조선해양이 일본 MOL로부터 초대형 LNG선 1척을 2.08억달러에 수주했다고 공시됨. 2024년 12월말까지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Bulker optimism dampened but still alive, Greek survey shows

Doric Shipbrokers 조사에 따르면 25%의 응답자가 향후 12개월 벌크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 2020년 조사대비 -40% 낮은 수준임. 반면, '다소 부정적' 응답자는 3%에서 15%로 증가함. 최근 용선료 하락, 경기성장률 둔화 전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도 60%가 유지됨. (Tradewinds)

Aframaxes and MRs to suffer if Mexico gains energy independence, Poten warns

멕시코가 에너지자립을 하게되면 aframax와 MR탱커 시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도됨. 멕시코 국영 Pemex가 자국 공장을 증설하고, 가솔린 수입을 줄이는 것을 의미함. Pemex는 2022년까지 2021년대비 수출량을 -50% 감축하고, 2023년에는 제로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Indonesia may release additional 22 ships amid coal export ban

인도네시아가 석탄금수령 중 추가 22척을 출항허가할 수 있다고 보도됨. 지난 1월 15일 34척을 출항함. 11-12월 DMO 이행여부 조사 회의는 1월 18-20일 열릴 예정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10일 기준 15일치 재고를 확보했다고 보도됨. (S&P GLOBAL)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